**[16]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과목이 탄생하게된 이유와, 현재 두 과목의 존립 혹은 변경에 대한 논의가 전공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료구조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떤식으로 데이터를 정의할지를 다룬다. 과거에는 작은 값을 큰 메모리 위치에 저장하는 big-endian 방식(most significant byte)과 작은 값은 작은 메모리 위치에 큰 값은 큰 메모리 위치에 저장하는 little-endian 방식(least significant byte)으로 서로 다른 방식이 존재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자료구조가 탄생했다. 이러한 방식들로부터 주어진 형태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소스를 뽑아내는 과정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지 고민하여 알고리즘이 탄생하였다.

학교에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가리키며 그걸 기반으로 필드에서 사용하였다. C++ 2023등 과 같이 병렬처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데까지 이르렀고, CPU 하나짜리를 가르키는 것도 어려운데 아예 스탠다드 언어 안에서는 병렬처리까지 갔다. 이로부터 수업을 봤을 때, 학생도 힘들고, 가르치는 것도 어려워서 현재 논의가 있는 것이다.